

“교수 되려면 1억 내라고 했다”

40대 시간강사 이대통령에 유서 남기고 자살

40대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를 하려면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25일 밤 11시께 광주 모 사립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 연단을 피워놓고 숨져있는 것을 부인(4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최근 이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라고 쓴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한 자리)가 1억 5천, 3억이라는 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다.”라고 적고, 교수 채용 대가로 대략 2년 전 전남의 한

사립대학에서 6000만 원, 두 달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서 1억을 요구 받았다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광주·전남 3개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해온 서씨는 “(현행) 시간강사(제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한국사회를 그대로 두면 썩는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교수들의 논문 작성·발표 과정에서도 비리를 많다고 적었다.

서씨는 자신이 석·박사학위를 받고 시간강사로 근무한 광주의 한 사

립대학 교수를 지칭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 진행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행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며 “이 바닥에서 교수가 되려면 2억 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의 유서에서 거론된 경기도의 사립대학은 “그런 사실이 없

다”고 부인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두 달 전 교수채용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서씨의 전공은 체육대상이 아니었으며, 돈을 요구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서씨가 상실감이 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이 논문을 쓰면 교수가 이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서씨의 가족들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숨진 서씨의 가족들은 “대학들이 채용 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으며, 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택 6·2 지방선거 D-6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선관위 직원들이 광주시 서구청 구민생활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장환-장만채 양강 압축

전남도교육감 선거, 교육관료 출신 후보 단일화

6·2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전남교육청 출신 교육 전문 관료’와 ‘대학총장 출신’의 2강 대결로 압축됐다.

(관련기사 3면)

김장환 후보측은 26일 오후 3시 광주의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태학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거쳐 김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실시된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사전 합의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면 김 후보는 “자신과 신태학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 장만채 후보를 크게 앞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풍부한 교육 경력과 전문적 식견, 보통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에 선출돼야 한다는 도민과 교육 가족 바람에 따라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면서 “신 후보가 공동선대위 원장을 맡고, 단일화에 동의한 서기남·윤기선 전 후보도 적극 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대학생을 가르쳤던 대학교수에게 맡길 수 없다”며 단일화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전남도 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한 서기남·윤기선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애초 7명이었던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재선 교육감 김장환 후보와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 동아인재 대 총장 김경택 후보, 여수정보고 전 교장인 곽영표 후보 등 4명으로 줄었다.

/박진우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가 27일과 28일 양일간 광주·전남지역 34개 일반 부재자 투표소와 병원·요양소 등에 설치하는 19개 기관·시설 내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정부의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되기 조치됐다.

이 선박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

에서 기존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해하

다가 우리측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

한 경고통신을 받고 항로대를 벗어나

우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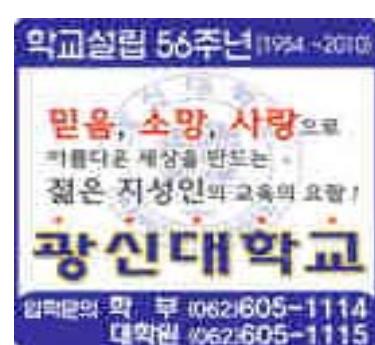
/연합뉴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부재자 투표소 방문하면 되고, 신분증과 함께 선관위에서 받은 발송봉투, 회송용봉투, 투표용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해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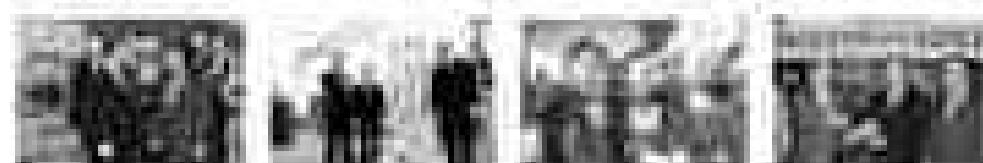
/최민기자 cki@kwangju.co.kr



강운태가 희망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5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강운태는 “희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전남을 살피면서 느낀 점은 광주와 전남이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집단, 창조의 첨신, 뜨거운 열정 그대로 다시 광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광운태
직원을 키우는 경시정